<모루헌>에는 돌집과 귤밭집이 있어요. 옛돌집을 리모델링한 숙소와 귤밭 앞 복층 숙소인데요. 본래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 지었는데 아직까지 숙소로 운영되는 중이에요. 원래 거주용도였던 만큼 정성껏 지었답니다.

<모루헌>은 서귀포 시내와 중문 중간에 위치하여 주요 관광지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. 동네 자체는 조용하기 때문에 편리한 동시에 아늑함도 느낄 수 있어요. 귤밭으로 둘러싼 정원 사이 숨은 노천탕은 풀어진 마음에 여유를 가득 더한답니다.

모루는 제주 방언으로 언덕을, 헌은 한자로 집을 뜻해요. 제주돌집과 귤밭이 어우러진 곳, 언덕 위 보금자리에서 제주스러운 삶을 누려보는건 어떠실까요?

“’모루’는 제주방언으로 언덕이라는 뜻이고 ‘헌’은 집을 나타내는 한자어에요. 모루헌은 옛돌집을 리모델링한 돌집과 신축을 한 귤밭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귤밭동은 제가 살기 위해 정성껏 지은 집인데요. 아직까지는 제주에 살고 있지 않아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사계절 꽃이 피는 모루헌으로 만들어 사계절 중 어느때에 제주에 오더라도 생각나는 곳으로 남고 싶어요.”

모루헌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1894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로86번길 7-2

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

• 귤 밭 속 숨은 노천탕 이용 가능

• 사진 찍는 위치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다양한 숙소의 외관

• 오래된 돌집에서 느껴지는 옛스러움

이런 여행객에게 추천

• 노천탕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하고 싶은 분

• 제주의 다양한 관광코스를 즐기고 싶은 분

• 제주의 옛스러움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

알아두면 좋은 사항

• 귤밭동은 2층으로 되어있는 독채에요. 가족끼리 방문하기 좋아요.